

POLITICS

2025년 9월 4일 목요일

민주당, 3대 특검법 개정안 ‘조기 처리’ 방침

남도 우리술 대상에 ‘섬진강바람 오크 40’

㈜섬진강의봄의 ‘섬진강바람 오크 40’가 올해 남도 최고 우리 술로 선정됐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사)전남전통주생산자협회는 지난 2일 강원도 전남도 경제부지사, 체장현 전남전통주생산자협회장, 안유성 추진위원장, 출품업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도 우리술 품평회를 열고 우수한 남도의 술 12개를 시상했다. 올해는 막걸리(탁주), 증류주, 약·청주, 기타주류 4개 부문에 총 45개의 제품이 출품됐으며, 종합대상(1점), 최우수상(4점), 우수상(4점), 새술마루상(1점), 인기상(2점) 등 총 12개 제품이 선정됐다. 종합대상을 차지한 ㈜섬진강의봄의 ‘섬진강바람 오크 40’은 광양에서 재배한 매실과 배를 발효·증류한 뒤 오크통에서 1년간 숙성한 프리미엄 증류주로 우리 농산물 사용, 맛, 향 등에서 평가위원의 극찬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막걸리 부문 황철봉가 ‘섬달전9도생황철막걸리’, 증류주 부문 시향가 ‘네오40’, 약·청주 부문 하심당 ‘하심당 석탄주’, 기타 부문 ㈜페어리플레이 ‘이제:배로 만들다’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상은 막걸리 부문 고급주조장 ‘장보고의곰 비파14’, 증류주 부문 대대로 ‘진도홍주38’, 약·청주 부문 고급주조장 ‘장보고의곰 비파20’, 기타 부문 완도비파영농조합 ‘황금과비파와인’이 차지했다. 새술마루상으로는 증류주 부문 시향가 ‘네오40’이 선정됐으며, 인기상으로는 탁주 부문 ㈜백운주가 ‘평양 매실막걸리’, 비탁주 부문 하심당 ‘하심당 석탄주’가 각각 선정됐다.

강원도 부지사는 “청정전 전남에서 자랑 특산물을 활용해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남도의 우리술이 케이(K)-푸드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세계 무대로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시, 대구식품산업전시

6일까지 ‘달빛동맹관’ 운영

광주시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동안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열리는 ‘2025 대구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해 ‘달빛동맹관’을 운영한다. ‘달빛동맹관’은 2013년부터 이어온 광주-대구 간 식품산업 교류 협력의 상징으로, 두 도시가 실질적인 협력과 상생 기반을 다지는 전시 공간이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대표 식품기업 12개사가 참여해 전통식품부터 최신 트렌드 제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주요 전시 품목은 무등산 수박 등 지역 농산물, 전통주, 김치, 장류, 참깨김부각, 제과·제빵류, 차류, 남도 전통음식 등이다. 참가업체들은 제품 홍보와 바이어 상담회를 통해 광주 농식품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기회를 얻게 된다. 올해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은 ‘식품을 EAT(잇)다’를 주제로 225개 기업이 참여해 426개 부스 규모로 열리며, 식품 관련 제품 전시, 바이어 상담회,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와 대구가 함께하는 달빛동맹관은 영호남이 손잡고 식품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양 도시가 힘을 모아 지역 농식품의 시장 진출 기반을 한층 더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광주식품대전’을 개최,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8452명의 참가객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다음 주 본회의 열어 정부조직법보다 먼저 기한 연장에 생중계도...야 “인민재판”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3대 특검’ (내란·김건희·손석 해병)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이른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오는 11~12일께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오는 9일과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별도의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부조직법보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지난 2일 민주당 ‘3대 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취지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올려보낼 예정이다. 개정안은 3대 특검 모두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기한도 기존에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일씩 두 차례, 총 최대 60

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자수·고발·증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TV를 통해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새롭게 제기된 의혹과 건전한 여사 및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심사 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내란 재판은 진행되는 지극히 판사가 직무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며 “이런 조치에 대해 법원도 수용하고 신속히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며 “내란 재판이 사초처럼 모두 기록되고 공개되어 후손들도 볼 수 있게 해야 다신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대 특검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공언한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대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정부조직법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임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개시되면 곧바로 표결을 통해 24시간 내 종료시키고, 법안을 하나씩 순차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특검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 자칫 두 법안의 처리 지연이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범죄행위와 추가 의혹이 국민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3대 특검 수사 범위와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강력한 3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더 센 특검법을 보면) 내란 특검이 기초한 사건 재판 1심은 의무 공개하도록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정치권력의 재판 관여 금지 원칙도 다 허공에 날렸다”며 “사람들 모아놓고 선포해서 재판하는 인민재판과 점점 똑같아진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비판했다. 주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의 수사와 재판 관여 시도가 한계를 넘었다. 민주당이 특검을 정하고 민주당의 박선원, 백혜련 의원이 증인을 서고 이제는 재판부까지 민주당이 정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난 2일 진행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규탄했다. 장동혁 대표는 “법의 탈을 쓴 정치 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고 비난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진행하는 공산당 인민재판식 특검 수사”라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검사팀은 전남 추경호·조지연 의원실에 이어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상오 기자 sole235@gwangnam.co.kr

우 의장, 北 김정은 위원장과 조우... 열병식 전 악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현지시간) 현지 공식 행사장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수인사를 나눴다.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제80주년 중국 전승절 열병식 및 환영 리셉션 오찬에 참석한 우 의장은 이날 열병식을 참관하기 전 김 위원장과 악수했다고 의장실이 전했다. 두 사람 간 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등에 대한 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악화한 남북관계 속에서 국가 의전서열 2위의 우 의장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면해 인사를 나누는 만큼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중국·러시아 정상들과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참석을 당부했다. 우 의장이 시 주석과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우 의장은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만나 경주 APEC 참석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우 의장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



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톈안먼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등 참석 정상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의장실 “시진핑 중국 주석 만나 APEC 참석 당부”

아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130개 한국 기업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우 의장에게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북러정상회담 기회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는지”를 물었다고 의장실은 전했다. 이에 우 의장은 “남북이 평화와 번영

의 시대를 열어나가기기를 희망한다”며 “어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지금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4일 중국 측 공식 카운터파트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의 국회) 석 상무위원장과 면담한다. 이어 중국의 경제·과학기술·미래산업을 담당하는 당세상 국무원 부총리와 만난다. 연합뉴스

여수세계섬박람회 전방위 지원체계 가동, 지원TF 킥오프 회의...실·국별 연계 지원방안 마련

전남도는 3일 도청 정철실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방위 지원 TF(팀) 킥오프 회의를 열고,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전방위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TF는 명확한 행정부지사를 단장, 박영재 해양수산국장을 부단장으로 한다. 17개 실·국과 전남도교육청, 전남경찰청, 시행지방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22개 시·군이 함께 참여한다. 이날 회의는 명확한 행정부지사 주재로, 17개 실·국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준비사항을 보고받고 실국별 연계 지원방안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향후 TF는 기획홍보, 대외협력, 안전준

영, 문화행사, 콘텐츠·환경 등 5개 분야로 세부화해 운영된다. 개막 6개월 전까지는 월 1회, 이후부터는 월 2회 정례회의를 열어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명확한 부지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국제행사이자, 전남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TF를 중심으로 도, 여수시, 박람회 조직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간 여수진도지구 일원에서 개최된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도, 전복 가격 안정화...해외시장 공략 미국·오스트리아서 연이어 판촉행사 추진

전남도가 전복 소비 촉진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 전복 해외 판촉 행사를 추진, 15만4000달러(한화 약 2억원) 어치를 수출한다.



전남도는 이번 판촉행사를 통해 유럽 고급 식자재 시장도 공략해 수출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7월 기준 전복 산지 가격은 kg당 10마리 기준 2만40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낮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수출 확대를 통해 내수 물량을 분산하고,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적극 펼치고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복을 비롯해 가격이 하락한 농수산물의 경우 수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생산자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조인철 “온라인 총기 제조 뿌리 뽑아야”

‘불법 총기 신속차단·처벌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사건)은 불법 총기 제조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사제 총기 제작 방법과 관련 영상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어려워 위험한 정보 방치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위의 신속 차단 대상에 ‘총기 제작’ 정보를 포함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이번 총도 사건의 피의자가 유튜브 불법 영상을 참고해 사제 총기를 제작했다는 사실은 온라인 불법 정보가 언제든 경찰관을 속지게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영상을 모니터링 하면서 심의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의 한계로 즉각적 차단

이 어려워 위험한 정보 방치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위의 신속 차단 대상에 ‘총기 제작’ 정보를 포함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이번 총도 사건의 피의자가 유튜브 불법 영상을 참고해 사제 총기를 제작했다는 사실은 온라인 불법 정보가 언제든 경찰관을 속지게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영상을 모니터링 하면서 심의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의 한계로 즉각적 차단